2014년 05월 20일

KB Daily

KB 투자증권

KB금융그룹

- **[김솔/Quant SOLution]**
  어닝시즌이 끝나갈 무렵에는 분기 실적호전주
- **[정대호/Credit Inside]**
  등급 간 양극화에서 등급 내 양극화로
- **[김현태/철강금속,종합상사]** POSCO (005490)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과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
- **[신정관/자동차]** 자동차 (Overweight)
  2Q14 감익 구간, 하반기 겨냥한 저가매수 유효

KB투자증권

2014. 05. 20

Quantitative Analysts
김솔 02) 3777-8217
kimsol@kbsec.co.kr
김민규 02) 3777-8073
gnj1203@kbsec.co.kr

Quant SOLution

어닝시즌이 끝나갈 무렵에는 분기 실적호전주

지난주 2014년 1분기 실적발표 기한이 마감된 가운데 KOSPI 396개 기업, KOSDAQ 471개 기업이 잠정 또는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어닝 시즌 초반에는 시장컨센서스가 존재하는 대형주의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여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만, 어닝 시즌 마무리 국면에는 실적호전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시장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표 실적이 양호한 종목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된다.

1분기 실적 Review

시장컨센서스와 발표실적이 모두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해본 결과 영업이익 총합계 기준으로 KOSPI는 시장컨센서스 대비 5.38% 하향된 실적을 발표했고, KOSDAQ은 22.3% 하향된 어닝쇼크 값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살펴본 결과 IT가전, 보험, 디스플레이, 증권업종이 시장컨센서스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냈으며, 조선, IT하드웨어, 운송, 건강관리, 에너지 등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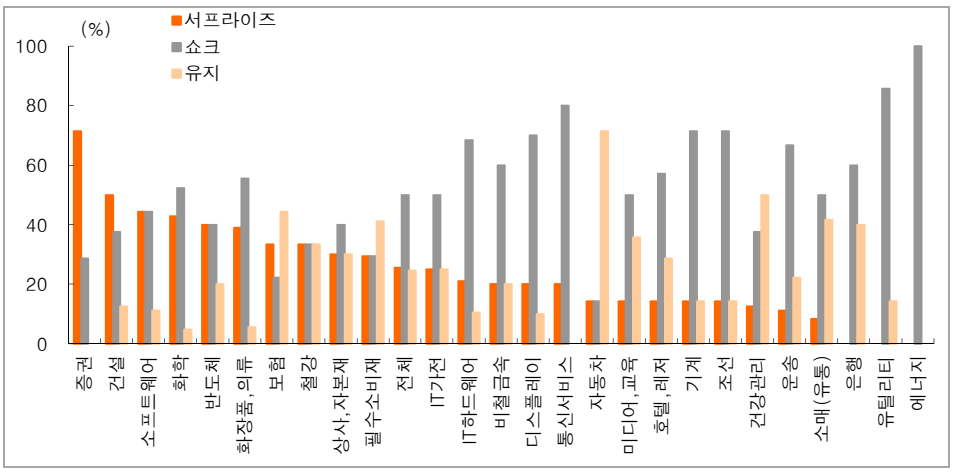
한국시장 Valuation & Earnings Update

지난주 KOSPI 종가 2,013.4pt 기준 12개월 forward PER 10.44X, PBR 1.02X를 기록했다. PBR 1X 이하로 하락 후 2.91% 크게 반등한 가운데 반도체, 소프트웨어, 비철금속 등의 수익률이 우수했고,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소매 (유통) 업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의 반등 폭이 높아 KOSPI 대비 outperform한 업종은 7개에 불과했으나, 대부분의 업종이 KOSPI PBR 1X 이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Global Valuation & Earnings Update

MSCI KOREA의 경우 최근 PER이 소폭 하락하며, 8.98X를 기록 (5/8기준). 미국 (15.38X)과 북아메리카 (15.34X) 및 유럽 (14.03X)은 전주에 이어 소폭 하락했고, 유럽국가 상당 수가 고점을 경신한 후 소폭 하락한 가운데, 체코 (12.92X), 영국 (13.61X)은 전주에 이어 전고점을 돌파했다. PBR의 경우 영국 (1.83X), 뉴질랜드 (2.11X)는 5년 최고 PBR을 기록했고, 러시아의 경우 PBR 0.46X로 5년 최저점에 머물러 있다.

업종별 종목 수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자료: Wisefn, KB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현재 당사는 상기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서 언급된 종목 리스트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이 아닌 계량분석에 의한 단순참고용입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KB투자증권

2014. 05. 20

Credit Analysts
정대호 선임연구원 02) 3777-8294
djeong@kbsec.co.kr

김수양 선임연구원 02) 3777-8266
ksuyang85@kbsec.co.kr

Credit Inside

등급 간 양극화에서 등급 내 양극화로

우량장기물에 집중되었던 발행시장 온기가 일부나마 하위등급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지만, 시장 내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은 여전한 모습이다.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나뉘었던 발행시장의 양극화현상이 하위등급 내 양극화로 바뀌어가는 모습이나, 이 역시 투자자의 냉정한 신용분석에 따른 정상적인 회복경로의 한 단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그룹 선정, 사전적 재무평가에 대한 이해 높여야

금융위에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그룹 선정을 위한 개선된 산정기준과 기준점수를 제시한바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흐름이 과거 IMF 이전 단계였던 '사후적 구조조정' 수순에서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그 방법과 시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투자자 역시 사전적 재무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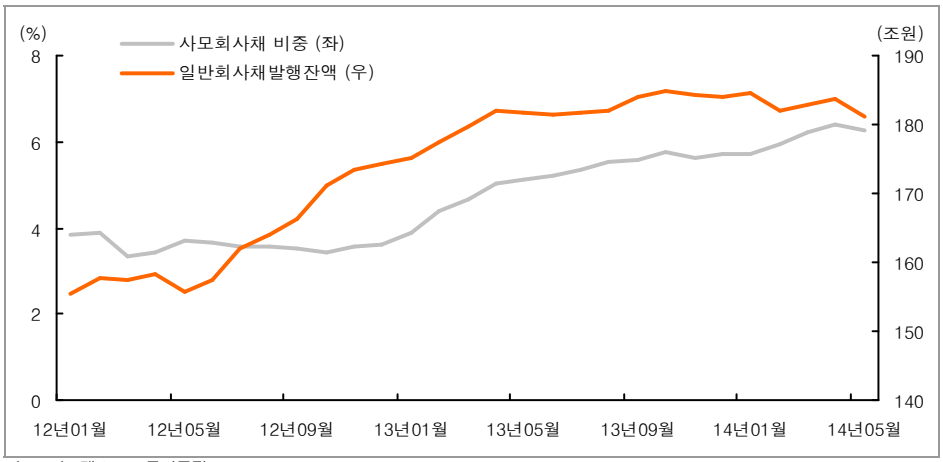
발행시장 : 정상적인 회복 경로를 지나는 중

4월 이후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위등급 발행시장 회복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미 AA등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조금 더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A등급 내 우량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상위등급에 집중되었던 발행시장의 온기가 일부나마 하위등급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하위등급 내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시장에 나서는 등 시장 내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은 여전한 모습이다.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나뉘었던 양극화 현상이 하위등급 내 양극화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지만, 이 역시 투자자의 냉정한 신용분석에 따른 발행시장의 정상적인 회복경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유통시장 : 캐리수요, 크레딧 채권 투자 증가

5월 채권시장은 미국채 10년물이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데 이어 유로존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채권시장에 나타나며, 채권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낮아진 지표금리 레벨에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상당 수요기반이 크레딧 채권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습으로 국채보다 크레딧 채권의 순매수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회사채 미매각률도 일부 A등급까지 소화되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크레딧 채권 강세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일반회사채 발행잔액 및 사모회사채 발행비중 추이



자료: 인포맥스, KB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현재 당사는 상기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KB 투자증권

2014. 05. 20

Analyst
김현태 02) 3777-8128
htkim@kbsec.co.kr

POSCO (005490)

투자의견 (유지)	BUY
목표주가 (유지)	36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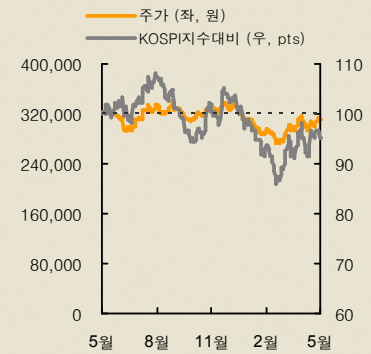
Upside / Downside (%)	16.5
현재가 (05/19, 원)	309,000
Consensus target price (원)	370,000
Difference from consensus (%)	(2.7)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Fiscal year ending	2013	2014E	2015E	2016E
매출액 (십억원)	61,865	62,830	65,308	68,919
영업이익 (십억원)	2,996	3,303	4,014	4,458
순이익 (십억원)	1,355	1,419	2,209	2,407
EPS (원)	15,787	15,701	23,960	26,004
증감률 (%)	(44.1)	(0.5)	52.6	8.5
PER (X)	20.7	19.7	12.9	11.9
EV/EBITDA (X)	8.4	7.9	7.1	6.6
PBR (X)	0.7	0.6	0.6	0.6
ROE (%)	3.3	3.4	5.2	5.4

Performance

(%)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5.5	(5.6)	(4.0)
KOSPI대비 상대수익률	(0.7)	1.7	(4.8)	(5.5)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26,941
유통주식수 (백만주)	59
Free Float (%)	67.2
52주 최고/최저 (원)	340,000 / 272,500
거래대금 (3M, 십억원)	65
외국인 소유지분율 (%)	52.5
주요주주 지분율 (%)	CITIBANK.N.A 15.4

자료: Fnguide, KB투자증권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과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

'POSCO의 신경영 전략 발표회'는 방대한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전달한다는 한계 속에서도 ① 성장 전략에 대한 진지한 고민, ②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회사 측이 제시한 2016년 연결 영업이익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의 성장 뿐 아니라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PJT'의 이익 기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별도 영업이익 3.0조원 목표는 2015년부터 시작될 철강 수급 개선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해 보인다.

'POSCO the Great'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4가지 아젠다 발표

POSCO 신경영 전략은 'POSCO the Great'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① 철강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 ② 신성장 사업의 선택과 집중,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경영 인프라 쇄신이라는 4가지 아젠다를 달성하는 것이 골자로 구성돼 있다. 모두 발언과 Q&A를 통해 권오준 회장은 내실 있는 성장과 재무구조 개선을 수 차례 강조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재무구조를 감안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임을 뚜렷하게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계열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구조조정 대상과 구체적 방안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별도 영업이익 3.0조원, 연결 영업이익 5.0조원의 목표 제시

손익과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2016년 별도 영업이익 3.0조원 (OPM 9.1%), 연결 영업이익 5.0조원 (OPM 6.4%), Debt-to-EBITDA 3.0X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014년에 국내외 철강 증설이 일단락되고 2015년부터 수급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영업이익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연결대상 계열사의 기여 영업이익이 2014년 1.0조원에서 2016년에 2.0조원으로 배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이 비상장사인 관계로 구체적인 정보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열사 구조조정 이슈에 연관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에 대한 입장도 밝혀

계열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이다. Q&A 과정에서 권오준 회장은 '대우인터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연결 영업이익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그룹사의 이익 기여분이 2013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미얀마 PJT'가 명시돼 있다. 2016년 미얀마 프로젝트 영업이익이 3,500억원 수준으로 국내 그룹사 이익 증가분의 44%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경영권 매각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포스코엠텍에 대해서는 매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자산매각과 원가절감을 통해 주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성장 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 투자의견 BUY 유지

한정된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과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철강 본업의 시황과 앞으로 확인될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 행사 자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증설로 인한 철강 수급 부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60,000원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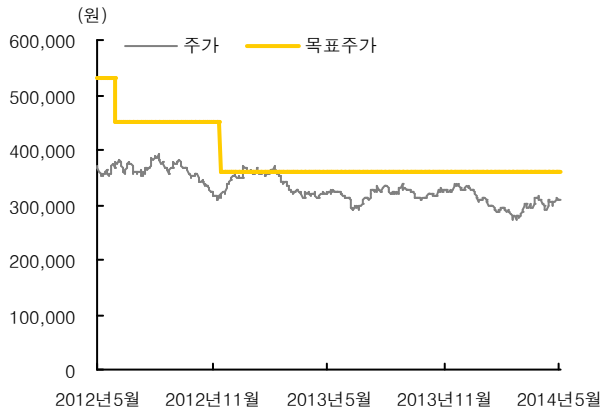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2014년 05월 20일 현재 당사는 상기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회사에 대한 최근 2년간 투자의견

기업명	발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비고
POSCO	2012/06/14	BUY	450,000	
	2012/07/25	BUY	450,000	
	2012/08/06	BUY	450,000	
	2012/09/05	BUY	450,000	
	2012/09/27	BUY	450,000	
	2012/10/24	BUY	450,000	
	2012/11/27	BUY	360,000	
	2012/12/10	BUY	360,000	
	2013/01/02	BUY	360,000	
	2013/01/30	BUY	360,000	
	2013/03/05	BUY	360,000	
	2013/03/26	BUY	360,000	
	2013/04/26	BUY	360,000	
	2013/07/01	BUY	360,000	
	2013/07/24	BUY	360,000	
	2013/07/26	BUY	360,000	
	2013/07/29	BUY	360,000	
	2013/09/30	BUY	360,000	
	2013/10/25	BUY	360,000	
	2013/11/20	BUY	360,000	
	2013/12/03	BUY	360,000	
	2014/01/07	BUY	360,000	
	2014/01/29	BUY	360,000	
	2014/04/01	BUY	360,000	
	2014/04/17	BUY	360,000	
	2014/04/22	BUY	360,000	
	2014/04/25	BUY	360,000	
	2014/05/20	BUY	360,000	

POSCO 주가 및 KB투자증권 목표주가



투자등급 및 적용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년 기준)
업종(Sector)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7%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7%~7% 수익률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7% 이상 하락 예상
기업(Report)	BUY (매수)	추정 목표주가 15% 이상 상승 예상
	HOLD (보유)	추정 목표주가 -15%~15% 수익률 예상
	SELL (매도)	추정 목표주가 15% 이상 하락 예상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14. 05. 20

Analysts
신정관 02) 3777-8099
chungkwan.shin@kbsec.co.kr
정승규 02) 3777-8560
skjung@kbsec.co.kr

자동차 (OVERWEIGHT)

Recommendations

현대차 (005380)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330,000원 (유지)

기아차 (000270)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90,000원 (유지)

2Q14 감익 구간, 하반기 겨냥한 저가매수 유효

최근 원화강세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2Q14 감익 (減益)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요인을 제외한 생산과 판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은 현대/기아차의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공장 증산으로 재고 축적이 먼저 이루어진 기아차의 미국/유럽 시장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믹스개선으로 ASP도 상승추세이다. 현대차는 먼저 내수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신차 효과가 해외시장으로 확산되는 2H14부터 글로벌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Q14 전년동기대비 감익 불가피

2Q14 현재까지 원/달러 평균환율은 7.6% YoY 하락한 1,036.9원/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한국공장 수출이 글로벌 판매의 25.6%, 42.8%를 각각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에는 직접적인 매출액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기아차의 2Q14 글로벌 출하는 각각 6.4%, 7.5% YoY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화강세로 인한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2Q14 영업이익은 각각 5.8%, 18.7% YoY 하락한 2.3조원과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아차, 1Q 재고 확충 이후 미국/유럽 판매 호조

기아차는 4월까지 YTD 국내공장 출하가 10.4% YoY 증가한 59.6만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수출 증가로 이어져 기아차 수출은 4월까지 YTD 15.0% YoY 증가한 44.9만대를 기록 중이다. 해외공장 포함 기아차의 2Q14 글로벌 출하는 7.5% YoY 증가한 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KB투자증권은 기아차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연결범위 재고가 적정 수준인 3개월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에서 기아차 YTD 판매가 각각 7.0%, 6.9% YoY 증가하며, 현대차 대비 호조를 보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신차 상품성 인정으로 내수시장 호조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쏘나타의 신차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내수시장에서 4월까지 YTD 6.8% YoY 증가한 22.7만대를 판매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현대차의 미국/유럽 판매는 각각 4월까지 YTD 0.7%, 1.6% YoY 감소하는 실망스러운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KB투자증권은 현대차의 연결범위 재고가 정상수준 보다 다소 낮은 2.3개월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미국공장에서 쏘나타 생산이 증가하면서 2H14 현대차의 재고 및 소매판매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겨냥한 저가매수 유효

1Q14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실적을 검토하면, 현대차는 BMW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출하량과 이익규모에서 폭스바겐-도요타에 이어 실질적인 3위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세단 중 처음으로 IIHS TSP+ 판정을 받으면서 기술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쏘나타는 같은 시기 페이스 리프트를 발표한 도요타 캠리 대비 우수하다는 초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2Q14 감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까지 바라보는 역발상으로는 오히려 감익구간을 매수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에 대하여 BUY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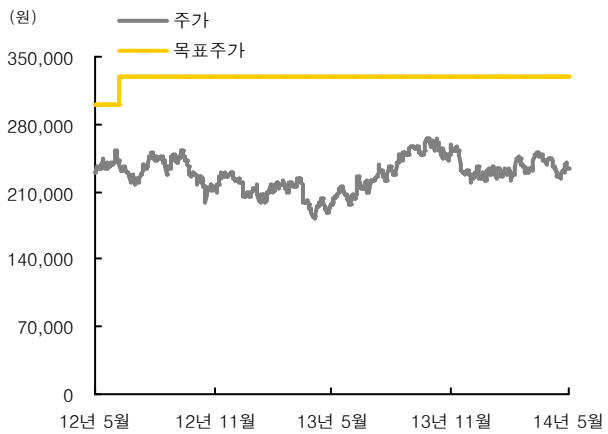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2014년 5월 20일 현재 당사는 상기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회사에 대한 최근 2년간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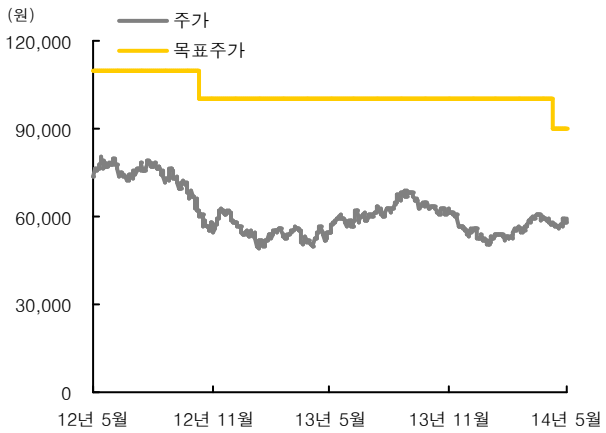
기업명	발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비고
현대차				
2012-06-25	BUY	330,000		
2012-07-04	BUY	330,000		
2012-07-27	BUY	330,000		
2012-09-19	BUY	330,000		
2012-09-25	BUY	330,000		
2012-10-23	BUY	330,000		
2012-10-26	BUY	330,000		
2012-11-05	BUY	330,000		
2012-11-20	BUY	330,000		
2012-12-11	BUY	330,000		
2013-01-04	BUY	330,000		
2013-01-25	BUY	330,000		
2013-04-05	BUY	330,000		
2013-04-19	BUY	330,000		
2013-04-23	BUY	330,000		
2013-07-03	BUY	330,000		
2013-07-15	BUY	330,000		
2013-07-26	BUY	330,000		
2013-08-14	BUY	330,000		
2013-09-06	BUY	330,000		
2013-09-23	BUY	330,000		
2013-09-27	BUY	330,000		
2013-10-04	BUY	330,000		
2013-10-17	BUY	330,000		
2013-10-25	BUY	330,000		
2013-11-11	BUY	330,000		
2013-11-20	BUY	330,000		
2013-12-03	BUY	330,000		
2014-01-06	BUY	330,000		
2014-01-15	BUY	330,000		
2014-01-24	BUY	330,000		
2014-02-19	BUY	330,000		
2014-03-12	BUY	330,000		
2014-04-07	BUY	330,000		
2014-04-25	BUY	330,000		
2014-05-07	BUY	330,000		
2014-05-20	BUY	330,000		

현대차 주가 및 KB투자증권 목표주가



기업명	발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비고
기아차				
2012-05-24	BUY	110,000		
2012-06-25	BUY	110,000		
2012-07-04	BUY	110,000		
2012-07-10	BUY	110,000		
2012-07-18	BUY	110,000		
2012-09-07	BUY	110,000		
2012-09-19	BUY	110,000		
2012-09-25	BUY	110,000		
2012-10-23	BUY	110,000		
2012-10-29	BUY	100,000		
2012-11-20	BUY	100,000		
2013-01-04	BUY	100,000		
2013-01-28	BUY	100,000		
2013-04-05	BUY	100,000		
2013-04-19	BUY	100,000		
2013-04-23	BUY	100,000		
2013-07-03	BUY	100,000		
2013-07-15	BUY	100,000		
2013-07-29	BUY	100,000		
2013-09-06	BUY	100,000		
2013-09-23	BUY	100,000		
2013-09-27	BUY	100,000		
2013-10-04	BUY	100,000		
2013-10-17	BUY	100,000		
2013-10-28	BUY	100,000		
2013-11-11	BUY	100,000		
2014-01-06	BUY	100,000		
2014-01-27	BUY	100,000		
2014-02-19	BUY	100,000		
2014-03-12	BUY	100,000		
2014-04-28	BUY	90,000		
2014-05-07	BUY	90,000		
2014-05-20	BUY	90,000		

기아차 주가 및 KB투자증권 목표주가



투자등급 및 적용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년 기준)
업종(Sector)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7%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7%~7% 수익률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7% 이상 하락 예상
기업(Report)	BUY (매수)	추정 적정주가 15% 이상 상승 예상
	HOLD (보유)	추정 적정주가 -15%~15% 수익률 예상
	SELL (매도)	추정 적정주가 15% 이상 하락 예상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